

## 중국, 세계무역기구에 미국 제소

미국이 중국 관련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 징수한다고 발표한 데 비추어 중국은 자국의 합리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이미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고 상무부 대변인이 4일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추가 징수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이는 중미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기반

을 파괴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중국측은 다자무역체제의 확고한 지지자와 중요한 기여자로서 세계무역기구의 기타 회원과 함께 공동으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국제무역의 질서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신화넷

# 해외서 각광받는 꽃불·폭죽

1월 28일, 말레이시아 페낭주 부킷 메르타잠에선 호남성 류양시에서 생산된 꽃불 제품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새해를 축하했다.

류양시화력꽃불수출무역회사 사장 호의침은 "음력설전 주로 중국인과 화교가 많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등 동남아 시장에 상품을 수출했다."면서 "수출량이 10만상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중국 꽃불의 고장"으로 알려진 류양시의 꽃불·폭죽 생산기업은 431 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생산액은 5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수출 규모는 전국 수출량의 70%를 차지한다.



양력설전, 독일 민중들이 줄을 서서 꽃불을 구매하고 있다.

/ 환구넷

장사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호남성이 수출한 꽃불·폭죽 규모는 48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그중 최대 수출 시장은 여전히 미국이었고 동남아 국가와 남미지역의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 꽃불 제품은 이미 2024년 초 음력설 기간 영국 시민이 런던 거리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달구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24년말, 독일 베를린은 중국산 꽃불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꽃불 제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정교한 기술, 다양한 상품, 추세에 맞는 업그레이드, 가격 우위 등을 꼽았다.

장사해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호남 꽃불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 규모는 18억 5,000만 원으로 3.4% 증가했다. 그중 독일, 화란, 영국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5억 3,000만 원, 2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으로 22.0%, 7.1%, 5.8%씩 늘었다.

동신꽃불그룹 사장 종건은 제품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각광받는 비결로 안정적인 품질, 높은 가성비, 납품 기일 엄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연기가 적거나 없는 화약을 연구개발하고 제품의 폭발음을 제어하는 등 유럽 시장 표준에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세기홍꽃불그룹 부사장 로산하는 "자사 산하의 모든 공장은 매년 10개 이상의 신제품을 개발한다."면서 "제품 혁신이 해외시장 확대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류양시꽃불·폭죽총회 수출분회 회장 문광휘는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규범 역시 류양 꽃불 제품

이 해외에서 환영받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꽃불·폭죽기술위원회가 설립됐고 이듬해 해당 위원회의 사무처가 호남에 등지를 틀었다.

전국꽃불·폭죽표준화기술위원회 비서장 주옥평은 "사무처가 중국에 설립되면서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중국 꽃불 업계의 발언권과 주도권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덕분에 생산기업의 생산 비용이 20% 정도 낮아지고 기술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호의침은 "중국 해관의 스마트 감

독관리 모델이 수출 적시성을 높이고 기업의 비용을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장사해관의 '수출 꽃불·폭죽 스마트 관리감독' 업무 모델이 호남성에 시행된 지 올해로 2주년이다. 장사해관은 지금까지 총 10만 1,000건의 꽃불·폭죽 수출 제품의 검증·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했다. 화물당 2차례의 하역 작업을 줄이고 운송 시간과 참고 보관 시간도 각각 이틀씩 단축시켰다. 이는 호남성 꽃불 제품 수출 기업의 직접적인 물류 비용을 3,000만 이상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신화넷

## 미국산 부분 수입 상품에 관세 추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발표한 공고에서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부분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에서 2025년 2월 1일 미국정부가 펜타닐(芬太尼)을 리우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징수한다고 발표한 것

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고에 따라 2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징수한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15% 관세를 추징하고 원유와 농업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皮卡)에 10% 관세를 추징한다.

/ 신화넷

### 상무부:

### 관련 품목에 수출 통제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4일 공고를 발표하여 텅스텐(钨)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공고는 공포한 날부터 정식 시행한다.

### 외자기업이 안심하게 할 터

상무부 대변인 하이둥은 최근 "상무부는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의 '뺄셈'(减法)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의 '덧셈'을 잘해 외자기업들이 안심

하고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음의 '중국'도 여전히 '중국'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 한국 전 국정원 차장 : 윤석열이 체포 지시



한국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신화넷

2월 4일 오후, 한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제 5차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 당일 출석한 3명의 증인중 전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은 윤석열이 사전에 전화를 하여 정당한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홍장원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일 밤 그에게 전화를 걸어 "꼭 다 잡아들여, 꼭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여인형과의 통화에서 14명 내지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말했다.

4일, 여인형은 체포 명단에 관한 증언을 거부했지만 '특정 명단'이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사전에 경찰에 관련 인물들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은 사전 조서에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며 "체포 명단에는 윤석열이 평소 소 문제가 있다고 여긴 사람들이 포

함되어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언에서 이진우는 '형사소송에 직면해있다'는 이유로 윤석열의 전화 지령 등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구속된 대통령 윤석열은 이날 3차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국회 방면은 증인이 윤석열 앞에서 진실하게 서술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퇴장이나 가림막이 설치된 상황에서 증언을 심문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윤석열이 직접 증언을 신문하는 것은 금지하고 증언이 끝난 후에만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윤석열은 발언에서 김용현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출동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는 부인했다.

헌법재판소의 배치에 따라 2월 13일까지 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변론이 3차례 더 열리게 된다.

/ 신화넷



## 영국 런던에서 설날 경축 행사

2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중국의 뱀해 음력설을 경축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런던 도심의 트라파가광장에서 배우들이 사자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다.

/ 신화넷

## 중국 자동차, 1월 이스라엘서 1만 2,000대 이상 팔려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1월 이스라엘 승용차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2일, 이스라엘자동차수입협회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올 1월 이스라엘 시장에서 1만 2,246대의 승용차를 판매해 선두를 지켰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1월 이스라엘 전기차 판매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비야디(BYD)는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1,945대를 판매했다. 또 다른 중국 제조업체인 샤오핑(小鹏)은 901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2위를 차지했다.

이스라엘자동차수입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 6만 3,489대를 판매했다. 한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 지커,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 구축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지리자동차

그룹의 지커(极氪)는 이스라엘 전역에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커에 따르면 '지커파워'(极氪能源)라고 불리는 이 충전 네트워크는 다양한 전기차 브랜드에 적합하다. 또한 지커 차량 소유자는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커는 2024년 초 이스라엘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중형 슈팅 브레이크 세단(豪华猎装轿跑) 지커 001과 소형 럭셔리 크로스오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新奢全能SUV) 지커 X 등 모델 2종을 출시했다.

지커의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8개의 충전소가 먼저 설치될 예정이다. 새로운 충전 네트워크에선 15분 충전으로 지커 X는 최대 252킬로미터까지, 지커 001의 경우는 279킬로미터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충전은 지커 전용 칩이나 앱을 통해 이루어진다.



2024년 11월 22일, 인도네시아 반덴주 탕에랑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협회 자카르따국제자동차박람회 개막식 현장을 찾은 방문객이 지커(极氪) 부스에 전시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 신화넷